



임당발굴 30주년 기념 특별전
1982,
임당을 발굴하다



2012.10.4_{Thu} ~ 12.14_{Fri}

장 소
영남대학교박물관
2층 아트스페이스 & 임당전시실

개막식
2012년 10월 4일 목요일 오후 4시

후 원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 특별전 전시해설 _ 큐레이터가 들려주는 임당발굴 이야기 ●

연번	대 상	일 시
1차	영남대학교 학생	2012년 10월 5일(금) 15:00~16:00
2차	영남대학교 교직원	2012년 10월 13일(토) 15:00~16:00
3차	영남대학교 교직원	2012년 10월 14일(일) 15:00~16:00
4차	일반 관람객	2012년 10월 21일(일) 15:00~16:00
5차	영남대학교 학생	2012년 11월 2일(금) 15:00~16:00

초대의 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를 보면 여러 소국이 등장하는데 그 중 압독국(押毒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압독국은 고대 경산지역에 기반을 두고 존재하였던 정치체로 이해되고 있는데, 문헌기록만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이 압독국의 실체를 우리 눈으로 처음 확인하게 된 것은 지금부터 꼭 30년 전인 1982년의 임당동 고분군 발굴을 통해서입니다. 1982년 경산 임당동고분군이 처음 발굴조사되고, 그 후 30년이 지난 동안 임당동을 비롯한 조영동·부적리·신대리 등 임당유적 전체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면서 임당유적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7세기까지 대규모 고분군古墳群과 환호環壕·토성土城·주거지住居址·저습지低濕地 등 같은 다양한 유적이 복합된 유적임이 밝혀졌으며, 이후 현재까지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을 통해 당시 압독국 사람들의 생활상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올해 2012학년도 임당유적 발굴 3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지난 3월부터 우리 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산시립박물관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대학을 개최하였고, (재)한빛문화재연구원과 함께 문화재청 선정 생생 문화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최근 학술세미나를 통해 압독문화를 재정리하였으며 경산신문사에서는 20부의 특별기획 연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영남대학교박물관에서는 임당유적 발굴을 통해 경산지역 고대사 복원에 큰 역할을 한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후원을 힘입어 임당유적 발굴 30년의 성과를 보여주는 특별전 **1982, 임당을 발굴하다**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우리 경산지역의 고대사와 압독국의 문화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9월

영남대학교 박물관장 이 청 규
영남대학교 총 장 이 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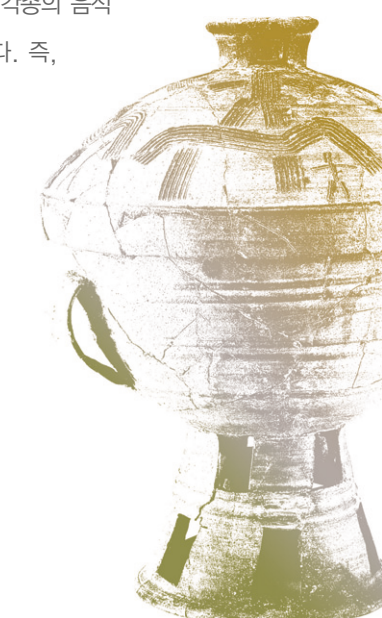


전시개요

올해 2012학년도 영남대학교박물관의 특별전시는 임당유적 발굴 3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1982, 임당을 발굴하다**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주제의 전시를 기획하였다.

1부 1982, 임당을 발굴하다는 임당유적 발굴사(發掘史) 전시한 것으로 지난 30년간의 발굴 경과를 정리하였다. 즉, 임당유적이 발굴되기 이전의 상황로 도굴로 인해 시작된 발굴이야기, 역사기록에 등장하는 압독국, 고지도와 도면으로 보는 임당유적, 임당유적 발굴조사 연표와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재)영남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 성과, 그리고 신문에 실린 임당유적 자료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발굴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들에 대한 사진 기록,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발굴조사 현장에서 사용한 각종 발굴 기자재와 현장기록을 담은 야장과 사진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다.

2부 임당 발굴과 고고학의 세계는 임당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소개하는 임당발굴 연구성과전이다. 지난 발굴조사를 통해 우리는 경산지역의 고대 사회를 복원해 낼 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현재 고고학을 비롯한 역사학, 지리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당시 압독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고배·개·장경호·대호 등의 토기와 무기·마구·농기구로 사용된 철기, 관식·이식·대금구·반지 등의 장신구, 무덤 안에서 출토된 각종의 음식물, 그리고 무덤의 주인공 또는 순장자의 인골 등 다양한 종류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즉, 고고학자들은 발굴된 임당 유물을 통해 이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관찰하며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보여주는 고고학 연구 세계를 담아내고 있다.



임당발굴 30주년 기념 특별전

1982, 임당을 발굴하다



임당유적 발굴의 시작과 경과

임당유적은 『1918年度 古蹟調査報告』第1册(1922) 「原田淑人 報告分」과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朝鮮實物古蹟調査資料』(1942)라는 책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유적에 대한 보존이나 관리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고분군 주변으로 민가가 들어서게 되었고, 유적은 계속해서 파괴되거나 도굴되어 타지역으로 반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982년 임당에서 도굴된 은제조약형관식, 순금제이식 등의 장신구와 은제과대, 환두대도 등 국보급 유물들이 해외로 밀반출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경산 임당동고분군(당시 사적 300호로 지정)에 대한 발굴을 영남대학교박물관에서 시작하게 된다. 이후, 경산 임당동·조영동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게 되었고, 택지개발지구 내의 분묘가 남아있는 지역과 공사 중 유구가 노출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1988년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발굴조사 후 이 지역은 사적 제331호로 지정되었다(현재 사적 300호와 331호는 사적 516호 경산 임당동·조영동 고분군으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듬해인 1989년 10월부터 1990년 6월까지 조영동고분군의 인접 지역과 공사로 유구가 노출되어 있는 지역을 주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이후 1993년에는 임당지역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시굴조사와 이 결과에 따라 (재)영남문화재연구원과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발굴조사에 참여하였고, 최근까지 (재)성림문화재연구원,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재)한빛문화재연구원 등에서 신대리, 임당지구, 임당동, 대동, 부적리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임당유적 전경



발굴조사 전경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기관의 탄생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국토개발에 앞서 문화재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대부분의 발굴조사는 국립문화재 기관이나 대학의 박물관이 이 일을 감당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대규모의 택지개발에 따른 문화재 파괴가 심해지면서 차츰 국토개발에 앞서 문화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1993년 임당지역 전체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영남대학교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대학박물관이나 몇몇 기관의 연합발굴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때 영남고고학회가 주도하여 (재)영남문화재연구원(당시 (사)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이 발족하였고,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내 발굴조사실이 문화재조사연구단으로 개칭하여 임당 발굴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로 이들 기관 외에 전국에 걸쳐 문화재 조사연구기관이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발굴사업에 참여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임당유적



임당유적이란 넓은 입량벌과 금호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임당구릉 위에 축조된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이 함께 만들어진 대규모의 복합유적을 말한다. 1980년대 초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지점을 달리하며 1,600여 기의 무덤과 주거지, 토성, 환호, 저습지 등의 다양한 생활유적이 확인되었으며, 약 25,000여 점이나 되는 방대한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다시 말해 이곳은 서기전 2세기부터 서기 7세기까지 약 1000년 가까운 세월동안 당시 압독국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유적 _ 환호, 토성, 주거지, 저습지

임당 구릉의 서북쪽에서는 환호를 비롯한 주거지와 저습지가 조사되었다. 임당유적의 환호는 임당토성이 축조된 구릉과 북편으로 마주하는 아트막한 구릉에 위치하여 신성한 의례의 공간을 감싸는 곳으로 이해된다. 토성은 임당유적 중 가장 높은 구릉에 위치하며 구릉의 가운데는 평탄면을 이루고 있고 사면도 매우 완만한 편이어서 주변을 두루 조망하거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도 유리할 뿐 아니라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기도 매우 유리한 위치임을 알 수 있다. 임당동 주거지는 말각방형 또는 장방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원형을 이루는 것도 있으며 대부분 화재로 인해 불탄 상태로 조사되었으며, 부뚜막과 구들이만 들려져 있고 바닥을 불다짐한 것도 있다. 저습지는 임당토성과 환호가 위치하는 남과 북, 양 구릉 사이의 계곡부에 형성되어 있는데 저습지 내에서는 수변제사로 추정되는 유물과 패각류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기원 전후의 시기에는 일정 수심을 가진 차수용 제방이나 보에 의한 저습지가 형성되었다가 그 후 자연적인 퇴적이 이루어져 점차 저습지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당유적 고분군

임당유적 고분군은 행정구역상 경산시 임당동, 조영동, 압량면 부적리에 걸쳐 분포하는 대단위 고분군으로, 경산지역을 대표하는 중심고분군이다. 이곳에는 초기철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목곽묘, 목곽묘, 적석목곽묘, 압광목곽묘, 석실묘 등 다양한 유형의 분묘가 시기를 달리하면서 각각 조성되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무덤이 축조된 것은 이들을 축조한 집단이 지속적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특히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축조된 크고 높은 봉토를 가진 고총은 그 축조 서열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금공품을 비롯한 많은 위세품들이 출토되어 당시 신라권의 세력동향과 신라고고학 편년 연구, 지역고고학 연구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 각 무덤들에서는 많은 인골이 남아 있어 순장을 비롯한 당시의 장제 연구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토기, 삶의 흔적을 담다



토기는 당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을 담아 죽은 사람을 위해 부장해 주던 것이지만, 동시에 옛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도 하다. 무덤의 공간에는 고배·개·단경호·장경호·대호 등 다양한 종류의 토기가 부장된다. 고고학자들은 이 토기를 통해 무덤의 연대를 비정하고, 토기를 만들던 도공들의 습관을 찾아내어 제작공방을 추적한다. 또한 토기제작 기술의 혁신을 찾아내고 외부에서 들어온 토기와 지역에서 생산한 토기를 찾아 유통이나 교역을 논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토기 부장의 습관을 통해 신라식 제사의 전통을 찾아내기도 하며, 대호라는 특별한 토기가 무덤 속에 어떻게 놓여지는지를 밝혀내기도 한다.

토기는 당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을 담아 죽은 사람을 위해 부장해 주던 것이지만, 동시에 옛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도 하다. 무덤의 공간에는 고배·개·단경호·장경호·대호 등 다양한 종류의 토기가 부장된다. 고고학자들은 이 토기를 통해 무덤의 연대를 비정하고, 토기를 만들던 도공들의 습관을 찾아내어 제작공방을 추적한다. 또한 토기제작 기술의 혁신을 찾아내고 외부에서 들어온 토기와 지역에서 생산한 토기를 찾아 유통이나 교역을 논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토기 부장의 습관을 통해 신라식 제사의 전통을 찾아내기도 하며, 대호라는 특별한 토기가 무덤 속에 어떻게 놓여지는지를 밝혀내기도 한다.

철기, 압독국의 기반

고대의 사람들은 철제 농구 및 무기 등 철기를 사용함으로써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부를 축적하며 주변 정복 전쟁에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고대국가 체제의 큰 기반을 닦았다. 임당고분군에서는 대도, 창, 화살촉, 갑옷, 투구 등의 무기류와 안고, 등자, 행령, 재갈, 말방울 등의 미구류, 도끼, 낫, 쇠스랑, 쇠삽날, 삽포, 호미 등의 농기구 등 다종다양한 철기유물이 출토되었다.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무기류, 미구류, 농구류를 통해 당시 압독국 사람들의 철기 생산과 유통문제, 철기유물 부장양상을 통한 매장예례, 철기를 통한 편년, 각종 농구류와 무기류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복원한다.



위세품, 왕권을 드러내다

고대사회의 최고 지배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금, 금동, 은, 유리 등 매우 진귀한 재료로 만든 관, 관모, 귀걸이, 목걸이, 허리띠, 팔찌, 반지, 신발 등의 장신구를 소유하였고 이것이 무덤의 피장자와 함께 부장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장신구를 지배자의 힘과 권위, 신분을 상징하는 물건이라 해서 위세품이라고 한다. 임당고분에서는 이러한 각종의 위세품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데, 이는 경주를 제외한 지방 고분에서 흔치않은 일이며, 임당고분군 피장자 위세가 어떠한지를 잘 증명해 주는 것이다.



압독 사람들의 식생활



음식물을 취득하고 조리하여 먹는 것은 고대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활요소였다. 임당유적에서는 수혈주거지, 토광유구, 고상식 건물지, 수로, 우물 등 다양한 형태의 식생활 관련 유구와 각종의 토기, 철기, 목기 등에서 압독국 사람들의 식생활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당고분군에 제사 음식으로 부장되거나 저습지에서 출토된 다양한 종류의 음식 잔존물을 통해 더욱 깊이있는 식생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임당고분군에 부장된 토기 속에서는 많고 다양한 음식의 잔존물이 출토되었으며 다양한 음식물을 무덤에 부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당시 압독국 사람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내세관을 엿볼 수 있다.

임당유적 고분군의 순장

순장은 왕이나 권력을 가진 자가 죽었을 때, 평소 그를 모시던 시종이나 하인을 죽여 무덤에 함께 묻는 습속을 말한다. 이 순장은 임당유적의 고총고분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순장묘는 압독국의 왕이나 그의 가족들이 죽었을 때 행하여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순장은 많은 부장품과 함께 타계의 생활이 현세와 연결된다는 사상에서 시행된 것으로 살았을 때의 권위를 죽여도 가져간다는 의미이다. 순장에 대한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왕이 죽으면 10명 내외를 순장하던 것을 지증왕대에 이를 금하였다는 기록과 좋은 대비를 이룬다.

